

재건축·행정 편의에 30년 된 가로수 118그루 잘려나갔다

광주 서구청 “도로 확장에 이식 불가” 조합 의견 수용 환경단체 “가로수 가치 무시 안이한 행태” 거센 비난

30년 넘게 동네를 지켜온 광주 서구 화정동 일대의 가로수 100여 그루가 아파트 공사로 인해 하루 사이 몽땅 잘려나갔다.

광주시와 서구청은 과거 가로수를 고사시킨 범인을 잡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걷고 나선 적이 있었는데, 최근 아파트 건립을 이유로 가로수 100여 그루를 자르겠다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관할 행정기관인 서구청은 나무를 잘라낸 것은 행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은행나무와 메타세콰이아는 최근 가로수로써 적합하지 않은 품종이라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서구청이 업무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를 위해 도시 경관을 오랜 기간 만들어온 가로수를 잘라낸 안이한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29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화정동 일대에 18개 동 1976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30만㎡)를 조성 중인 연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지난 28일 정비사업 부지 내 인도에 설치된 은행나무와 메타세콰이어 등 118그루를 잘라냈다.

조합은 인도를 도로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인도에 심어진 가로수를 옮겨 심어야 하나 두 수종 모두 뿌리가 깊어 40cm를 넘는 큰 나무들로 이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비교적 크기가 작은 아팝 나무 141그루를 새로 심는다는 계획을 제출했고, 서구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28일 이 일대 가로수가 잘려나가자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서구청이 가로수 바꿔심기 업무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가로수의 가치를 무시한 안이한 행정을 했다'고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987년 심어져 30년 넘게 성장하며 주민들에게 그늘을 주고, 마을의 풍경을 만들어 놓은 나무들이 베어져 밀물만 남겨졌다"고 애석해했다.

이 단체는 "문제의 가로수들은 광주 '도시림·

생활림·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로 판단, 단순 제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바꿔심기'의 대상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이번 가로수 제거 행위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는 도시정비에 따른 작업으로,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업조합이 기존 가로수들을 제거한 것은 정비 계획상 차도를 확장하면서 인도 폭이 좁아질 것에 대비, 보도 내의 가로수가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려는 계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비 계획상 인도의 폭이 좁아지다 보니, 직경이 넓은 가로수들 대신 직경이 좁은 가로수를 심을 수밖에 없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사업조합이 서구청에 제출한 협의서에도 '실질 가로수 보호를 규격이 협소해 대형 규격의 기존 수목이 활착할 수 있는 생육환경으로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뿌리가 깊고 크기가 큰 은행나무와 메타세콰이어를 옮겨 심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절감 차원에서 멸종한 나무를 잘라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존의 가로수를 존치하거나 이식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또 재개발사업이 보행공간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이식도 가능했을텐데, 신규 인도가 폭이 좁아 이식이 어렵다는 재개발 조합측의 의견에서 보듯이 새로운 인도에 기존 나무들의 식재가 불가능한 문제도 있다"며 "새로운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보다 도시의 경관을 오랫동안 만들어 온 오래된 가로수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9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월드컵 4강로 일대 가로수가 잘려나가 밀물만 남아 있다. 이 일대 가로수 118그루는 지난 28일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인해 잘려나갔다.

암 환자수 줄었다? ...코로나에 검진 줄어든 탓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암 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감소하면서 신규 암 진료 환자 수가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암 치료에 있어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기적인 암 검진을 독려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9일 발표한 '암 질환의 의료이용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암 진료 환자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0년 신규 암 진료 환자수는 3.0%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불거피

한 이유가 있거나 번거로워 암 검진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난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5년간 암 진료 환자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신규 암 진료 환자수도 '2016~2019년' 사이 연평균 4.0%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특히 연령별로는 '40~50대'와 '70대'에서, 암 종별로는 '위암'과 '결장암'에서 신규 진료 환자 수가 비교적 크게 감소했다. /채희중 기자 chae@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 처분' 상고

전두환 씨의 며느리 이윤혜씨가 전씨 자택 별채에 대한 공매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이씨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3부의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씨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캠프의 공매 대상으로 이자택은 2019년 3월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문제는 전씨의 연희동 자택이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나뉜다는 점이었다.

전씨 일가는 이 점을 근거로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다수의 행정 소송을 제기해 맞섰다.

며느리 이씨는 검찰의 압류 처분과 캠프의 공매 처분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한편 별채와 달리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고법에서 압류가 취소됐고, 이 결정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이씨가 상고한 사건은 별채의 공매 처분에 대한 소송이다. /연합뉴스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광주시·5개구, 내달 21일부터

광주시와 5개 구가 오는 12월 21일부터 개인정보 보안성을 강화한 새로운 전자여권을 발급한다.

29일 남구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국민들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한 차세대 전자여권을 선보였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녹색에서 남색으로 표지 색깔이 바뀌고 내구성, 내충격성, 내열성이 높은 폴리카보네이트(PC) 타입의 개인정보표면이 도입돼 보안이 강화됐다.

아울러 차세대 전자여권에는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과 문화유산 등 다양한 이미지가 사용됐으며 여권 면수도 최대 10면까지 늘었다.

차세대 여권은 남구를 포함 광주 5개구와 광주시청에서 오는 12월 21일부터 발급 가능하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대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여권발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권행정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021년 보육 유공 정부포상

광주 북구 '국무총리상' 수상

광주시 북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1년 보육 유공 정부포상'에서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육 유공 포상은 보육 사업 도입 및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다.

북구는 ▲보육정책 수립·집행 ▲공보육 시설 확충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질 및 안전관리 ▲보육 관련 제도 개선 수법사례 등 평가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보육현장에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는 보육교사들과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동구 '올바른 재활용 실천확산 시범사업' 선정

광주시 동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올바른 재활용 실천 확산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29일 동구에 따르면 공모에는 선정된 전국 10개 자치단체중 광주에서 유일하게 동구가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자원순환가게'가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2000만 원을 확보했다

'올바른 재활용 실천 확산 시범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재활용틀을 높여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해 타 공공·민간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벤치마킹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다.

동구는 이번 선정으로 기존 자원순환마을에 지원

순환가게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제대로 분리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로 무게 측정 후 유가 보상할 방침이다.

또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올바른 재활용 실천을 돕고, 주민 참여 유도 및 교육·홍보 효과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해 이동식 자원순환가게도 운영할 예정이다.

인택 동구청장은 "올바른 재활용 분리 실천·확산 선도모델의 발굴과 시범운영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탄소중립을 실천해나갈 것"이라며 "쓰레기 줄이기, 분리배출 준수 등 탄소중립을 위한 추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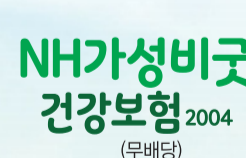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할인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용산지점 062)526-0222~3
지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화정지점 062)372-0421~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동지점 062)512-1984~5
농성지점 062)361-4472~4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운암지점 062)527-3295~6
유덕지점 062)373-3235~6
하나로마트점점 062)511-290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비틀지점 062)381-1971~2
운천지점 062)371-2772~3

지역대표 금융기관

